

# 교과서와 한강다리

文龍鱗

한국교육개발원 경제교육실장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 편찬된 교과서가 89년 3월초부터 학생들에게 배포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학교 3학년, 1개 학년만 보더라도 새 교과서를 갖게 될 학생수는 약 80만에 이른다.

한번 편찬된 교과서가 대략 7년간 계속 보급된다고 하면 약 560만부가 인쇄되어야 하는 셈이다. 대단한 베스트셀러이다. 그것도 한번 읽고 치우거나 장식용으로 비치될 수 있는 假需要가 아닌, 매 페이지마다 줄을 긋고 외고 하는 精讀派 독자들로만 560만이 아닌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 교과서를 집필하고 제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영광스런 것인지를 알 만하다. '교과서 집필'이란 말 그 자체는 대단한 위력을 가진다. 집필을 의뢰할 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교과서를...”

“아닙니다. 전 아직 교과서를 쓸 위치가 못되어서...”

그러나 이러한 망설임과 두려움의 반응이 누구에게서나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은 분명히 교과서 집필의 경험이 없는 분이다.

집필경험이 있는 분의 평상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요? 가급적 날 좀 빼주세요. 한번이면 되었지, 또 써요?”

“나는 안되겠습니다. 다른 일로 바빠서요. 그런 것 이제 안할랍니다.”

밀줄치며 읽어줄 560만 독자를 염두에 둔다고 할 때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긴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사계 최고의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모셔서 560만의 독자를 감격케 하고 지혜롭게 하리라는 결심이 집필진 구성에서부터 좌초되기 시작한다.

교과서가 책 중의 책이어야 하고, 그 집필진은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거부되지 않는데도 집필자는 실제에 있어서는 적은 원고료와 짧은 집필기간, 그리고 까다로운 검토자, 운문가, 그리고 교과서 심의위원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어낼 名文을 써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야 한다. 이러한 중압감에 대한 보상은 그간 200자 원고지 1매당 2,400원의 원고료가 전부였고, 금년부터 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는 한다.

물론 보상을 금전적으로만 논할 수는 없겠으나, 사명감에만 호소하여 좋은 책을 만들려는 시도가 갖는 한계도 깊이 인식되어야 한다.

최고의 전문가가 경쟁적으로 집필하기를 원하고, 집필을 맡은 사람은 이것을 영광으로 알아 일생 일대의 名文을 남기고자 전심전력하는 풍도가 하루 속히 도래하길 기원한다.

교과서의 문장 하나 하나에 새겨진 뜻이 560만의 머리 속에 흡수되어 갈 자양분이라고 하면, 이 영양소를 풍부케 하는 일이야말로 한강에 놓인 다리 하나의 값어치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기사가 뒷머리를 친다. 노량진 대교의 설계비용이 3억, 거푸집 비용이 30억이었다는 기사이다. 인쇄·보급비를 제외하고 작년 국민학교 교과목당 교과서의 책당(예컨대 3학년 1학기 도덕 교과서) 연구개발 비용의 총액이 800만원 정도였던 것이 생각난다. 한강다리 1개의 설계비용의 40분의 1, 거푸집 비용의 400분의 1에 불과한 연구·개발비용으로 560만의 우리 다음 세대가 읽고 배울 교과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설계도’란 비유를 적용한다면, 교과서란 민족과 국가의 설계도가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가 黑字經濟로 돌아섰는데 이런 설계도에도 돈 좀 써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별기고	2	새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 출판인의 편지/金京熙
긴급특집	4	“2종 教科書 어떻게 만들 것인가” 紙上公議 李鍾泰/林夏珍/金洪錫/李康允/李泰寧/ 金元弘/金炳元/梁珍模/구연주/박우정/ 廉鍾國
베스트셀러사회	8	姜萬吉의 「分斷時代의 歷史認識」/金彦鎬
서평	10	「정보사회와 언론」—孫龍 「歷史主義」랑케에서 마이네케—李漢龜
	11	「高句麗史研究」(1)—李龍範 「韓國民俗學」—李光奎
	12	「다윈 이후」—朴星來 「印度의 傳統과 文化」—李正浩
	13	「한움큼의 빛」—정현기 「巨人의 掌」—박덕규
초점	14	越·拉北作家연구, 그 현황과 전망/辛德龍
출판화제	16	현대사의 한 '인물'에 대한 체계적 이해
	17	현대경제학의 主流 집대성
인터뷰	18	출판협회 제 38대 회장 權炳奎씨
프로필	19	出協 신임 부회장 金洛駿·田炳皙·許昌成씨
시평	20	한글맞춤법의 역사적 변천(下)/李翊燮
해외논단	24	書評에 대하여—英國의 경우(下)
클로즈업	27	KBS 「이 한권의 책」 담당 黃仁宇아나운서
종합취재	28	저작권 에이전시, 무슨 일을 하나
지금 독서중	22	소로우의 「순속의 생활」—사업가 高大煥씨 鄭乙炳의 「까토의 自由」—무역상사원 丁楊春씨
	23	金雲學의 「젊은이를 위한 般若心經」—쌍용양회 梁東翥씨 곰브리치의 「西洋美術史」—력키금성 任慶淑씨
번역중	26	「그리드시스템이란 무엇인가」—잡지편집자 金斗禧씨
집필중	26	「황색인」 2부/李相文
세계의 출판	30	耽美主義문학의 선구자 오스카 와일드·하
책의 세계	15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김호근
독자서평	29	「韓國傳記文學論」·「아이야 울려거들랑」
	32	신간안내
	38	과학·기술도서
	40	200자 안내·화제의 책·이색출판
	42	신간목록
	46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書評안내
	47	출판계 움직임
	48	독서퍼즐 정기구독 안내